

류현진 7월 복귀 유력



▲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후 재활 중인 류현진. 사진=facebook(토론토 블루 제이)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접합(토미존) 수술을 받은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의 7월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로스 앳킨스 토론토 단장은 1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류현진과 볼펜 투수 채드 그린의 다음달 타자들을 상대로 실전에서 공을 던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린은 류현진의 재활 파트너다. 그린은 류현진보다 1개월 먼저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다. 류현진과 그린은 팔꿈치 수술 이후 토론토의 스프링 캠프 시설이 있는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재활 중이다. 류현진은 캐치볼과 볼펜 투구 등을 거쳐 몸에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음주 타자를 타석에 세워 두고 공을 던지는 라이브 피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류현진 복귀 시점은 목표했던 것처럼 올스타 휴식기가 끝난 7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피트 워커 토론토 투수코치는 "류현진의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류현진 역시 자신이 왜 이 팀에 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2020시즌을 앞두고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코로나 19 여파로 단축시즌으로 진행된 2020년에는 5승2패, 평균자책점(ERA) 2.69의 성적을 남겼다. 2021년엔 14승10패, ERA 4.37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경기에 등판해 2승, ERA 5.67을 마크한 뒤 수술대에 올랐다. 올해가 4년 계약의 마지막 해다.

“김민재 맨유 이적, 최종 조율만 남았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중앙 수비수 김민재(27·나폴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로 이적할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탈리아 매체 '일 마티노'는 이를 전 "맨유가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 영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매체 풋메르카토도 이날 "맨유는 다음 시즌 수비 보강을 위해 김민재 영입을 최종 목표로 삼고 선수단 대표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데일리메일, 미러 등 영국 매체들도 이탈리아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해 김민재의 맨유 이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 경기 중 상대 선수와 볼 경쟁 중인 김민재(왼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7월 1일부터 보름간 김민재의 바이아웃(소속팀 동의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는 최소 이적료) 조항이 발동된다. 바이아웃 금액은 4,400만 파운드(약 747억 원)로 알려져 있다. 맨유는 김민재 영입을 위해 5,200만 파운드(약 870억 원)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나폴리가 김민재 영입을 위해 페네르바흐체(튀르키예)에 지급한 바이아웃 금액은 1,950만 유로(약 283억 원)였다.

김민재가 올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맨유에 입단한다면 EPL 무대에서 뛰는 15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또 박지성 전북 테크니컬 디렉터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맨유 유니폼을 입는다.

한국 축구, 다음달 페루, 엘살바도르 상대 평가전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다음달 2차례 친선경기를 갖는다.

16일 대한축구협회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2연전이 다음달 16일 부산, 20일 대전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대표팀은 먼저 16일 부산 아시안드 주경기장에서 페루를 상대한다. 이어 20일에는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대결한다. Kickoff 시간은 두 경기 모두 오후 8시다.

부산에서 A매치가 치러지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E-1 캄피온십(동아시아컵)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당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한 한국 대표팀은 3전 전



▲ 지난 3월 열린 콜롬비아와 친선경기에서 득점한 뒤 기뻐하고 있는 손흥민(왼쪽). 사진=대한축구협회

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부임 이래 1무 1패를 기록 중인 클린스만 감독이 페루를 상대로 부산에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6월 칠레와의 친선경기 이후 1년 만에 A매치가 열린다. 손흥민의 100번째 A매치로 치러진 당시 경기에서 한국은 황희찬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프리킥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K리그1 승격 이후

뜨거운 축구 열기를 자랑하는 대전에서 시원한 골 폭죽이 터질지 기대를 모은다. 한국의 페루전 역대 상대 전적은 2전 1무 1패로 열세다. 북중미의 엘살바도르와는 처음 맞붙는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